

유통·수거·폐기...전과정 안전 철저통제

생활속 수은 중독 비상

㉞ 선진국 사례로 본 대책

**캐나다, 함유량·폐기·재활용 정보 등 제품 표기 의무화
정부, 수은 폐기물 관리 규정·수거 체계 확립 서둘러야**

수은 형광등이 수은 함유 표기조차 없이 유통되고 혈압계·건전지 등 수은 첨가 제품이 마구잡이로 버려지는 우리와 달리 캐나다를 비롯한 환경 선진국에선 생활 속 수은 관리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독성 물질인 수은 관리에 사실상 손을 댔던 우리 정부로선 유통·수거·폐기·재활용 등 전 과정에서 체계를 확립한 외국 사례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수은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환경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의 경우 '수은 첨가제품 규제'를 통해

수은함유 제품 제조자 및 수입업자에게 제품 또는 포장에 도장, 라벨, 마크 등의 방식으로 관련 정보 표기를 강제화하고 있다.

수은 함유 문구 표기는 물론, 우발적 파손시 안전 조치 방안, 폐기 및 재활용 방법(담당자 연락처 적시 등), 적법 절차에 의한 폐기·재활용 준수 의무 고지 문구를 포함하도록 했다. 자동차 헤드램프 등 내부 부품에 들어간 수은 함유제품조차 수은을 상징하는 마크를 표시할 정도다. 국내 유통 중인 수은 형광등이 '유리 취급 주의'라는 단순 표기만 있을 뿐 수은 함유 사실조차 알리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사뭇 대조

적이다.

연간 폐형광등 8500t, 폐건전지 1만 4000t 등 수은 함유 폐기물이 쏟아지는 일본에서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된 수은 함유 폐기물은 지자체와 중간처리장을 이용해 끌어 모은다. 이후 안전한 컨테이너로 포장, 홋카이도 지역의 산으로 옮겨 분류 작업(전처리), 열·증류처리(중간처리)를 한 뒤 남은 찌꺼기는 외부 환경과 차단된 최종 처분장에 매립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처리 과정에서 회수된 수은은 형광등 생산업체, 대학 연구기관으로 옮겨져 재사용되며, 일부는 화학업체 등으로 팔려나간다.

그동안 국내에선 수은의 치명적인 유해성을 알면서도 정부는 물론 일반 시민조차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허술하게 관리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수은에 관한 미나타협약'에 서명한 우리 정부로선 협약 발효 전 수은·수은함유 폐기물 관리를

서둘러 강화해야할 형편이다. 내년에 발효 예정인 이 협약은 가입국을 상대로 수은·수은함유 제품 모니터링 강화, 국가간 수은·수은 함유제품 교역 제한,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일상 속 수은 노출을 최소화하고 수은 사용량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 계획이다. 캐나다 등 외국 사례를 참고, 수은 함유 제품임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고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 수은 제품 표기제(라벨부착) 도입을 검토 중이다.

우리 실정에 맞는 수은 함유 제품 수거 체계도 확립이 요구된다.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망을 이용한 거점수거 방식(대만)과 학교나 공원 등을 거점으로 정하고 수거해가는 방식(일본) 등 외국 사례를 시범운영한 뒤 기존 방식에 변화를 줘 수은 회수율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하남산단 남영전구 공장

280m 우수관로 수은 검출

맹독성 물질인 수은을 불법 매립한 광주 하남산단 전구업체(주)남영전구 광주공장 주변 우수관로에서 수은이 검출됐다. 해당 우수관로가 풍영정전과 연결된 것을 감안 하면 사실상 남영전구에서 나온 수은 일부가 외부 하천으로 유입된 셈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공장 정문에서 280m 떨어진 우수관로에서 시료(물)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수은 0.0066mg/L이 검출됐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7일 공장 주변 10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했다. 시는 수은의 하천 유출을 막기 위해 사업주에게 관로 준설 등을 요구하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의 지위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형호기자 khk@

광주지법 법인회생 설명회

'담당 판사에게 듣는 법인회생 노하우.' 광주지법은 13일 오후 2시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기업을 위한 법인 회생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법인 회생 업무를 담당하는 공두현·나상아 판사가 참여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법인 회생 절차, 채권·채무자 유의 사항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이 갑자기 어려움을 겪거나 거래처의 갑작스러운 회생 신청으로 강제집행을 못하게 됐을 때 기업들이 적절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저소득층에 전달할 '사랑의 소금'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와 그린장례식장(회장 김영관) 관계자들이 12일 북구청 광장에서 저소득층에 전달할 소금을 차량에 싣고 있다. 그린장례식장은 이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2000만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북구에 전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도 출연기관 연구원을 개발기술 24차레나 빼돌려



○...전남도가 출연한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뇌물을 받고 자체 생산한 연구 기술을 무단으로 업체에 빼돌렸다가 경찰에 걸렸다.

○...1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모

연구센터 소속 연구원 A(38)씨 등 3명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연구원 기술을 5개 업체에 넘긴 대가로 24차례에 걸쳐 46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연구장비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돕고서 1700만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속한 연구원은 곡성에 자리 잡고서 친환경 농생명 산업을 위한 다양한 연구, 분석사업 및 기업지원 활동을 하는 기관"이라면서 "농업 기술 발전을 위해 써야 할 기술들이 몇몇 연구원들의 일탈로 업체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며 혀를 끌굴.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세월호 선장 '승객살인' 유죄

대법, 무기징역 확정...승무원 15명 전원 징역형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퇴선명령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등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승객들이 의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내버려둔 채 먼저 탈출한 이씨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1심부터 쟁점이었다. 검찰은 이씨와 1·2등 항해사, 기관장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씨 등에게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2심은 이씨의 살인죄를 인정하며 형량을 징역 36년에서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박정욱기자 jwpark@

2016 수능 현장 이모저모

사라진 교문앞 도열·피켓...차분해진 응원

입원 치료중 구급차 타고와 보건실서 시험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2일 광주·전남 88개 시험장을 비롯, 전국 1212개 시험장에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이른 새벽부터 시험장으로 들어서는 학생도 있었고, 일부 학생들은 피켓 못할 사정으로 순찰차를 타고 시험장을 찾았다. 갑작스런 통증으로 아쉽게도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도 있었다. 교사와 후배 학생들은 올해도 시험장에 나와 수험생을 응원했다.

○...예년에 비해 각 시험장의 응원 분위기는 차분했다. 제26지구 제31시험장인 광주시 서구 상무고와 제38시험장인 상일고에 앞은 후배들의 응원전이 사라졌다. 교사와 학생 10여명만이 시험장으로 들어서는 수험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경신여고와 금호고 앞도 마찬가지였다. 예년이면 양 옆으로 30여m 가량 늘어선 응원단 대신 담임 교사들이 나와 학생들을 체크하며 입실을 도왔고, 수능 때면 물결을 이루던 피켓도 이따금 눈에 띄는 정도였다.

○...광주시 서구 무각사에서는 '수능 100일 기도 회향식'이 진행됐다. 이날은 평소와 달리 수능 100일 기도 회향을 기념해 오전 9시30분부터 예불이 진행됐다. 60여명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사진과 수능기도 100일 발원문을 펼치고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며 염불을 외었다.

○...119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수능을 치르는 학생도 있었다. 이날 오전 7시30분께 광주시 북구 경신여고 앞에서는 수험생 박모(18)양이 시험장을 잘못 찾아와 경찰 순찰차를 타고 동신여고까지 이동했다. 광주기독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김모(18)군은 구급차를 타고 시험장인 동성고에 도착, 보건실에서 시험을 봤다. 순찰차를 타고 고사장에 도착하는 등 이날 광주·전남에서 60여명의 수험생들이 경찰과 소방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시험을 볼 수 있었다. 반면 나주 금성고 2고사장에서는 문모(18)군이 갑작스레 통증을 호소해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돼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광주북부경찰서 모범운전자 김경수씨는 이날 오전 7시5분께 북구 신안동 한 아파트 앞에서 수험생 박모(18)양이 탑승한 차량이 타이어 펑크로 정차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박씨는 곧장 차를 세우고 펑크난 타이어를 스페어 타이어로 교체해 박양이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왔다.

○...경신여고에서 학생의 입실 여부를 확인하던 한 교사는 입실한 학생의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인근 문구점으로 뛰어갔다. 이 교사는 시계를 가지고 오지 않은 학생을 위해 50여m 떨어진 문구점에서 시계를 사 학생의 손목에 채워줬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유)수호부동산중개법인은 법원경매 낙찰대리업무, NPL(부실채권)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질권대출, NPL매입,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전국 최저금리!! 전국 최고 한도!! NPL 잔금 5.2~5.9% 중도상환 無

(유)수호중개법인 물건 광고					
광주지원	2014타경 30504	주택	군산지원	2012타경 7036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0736	상가	남원지원	2015타경 377	공장
순천지원	2014타경 7817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전주지원	2015타경 8853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5타경 1428	공장
목포지원	2014타경 16341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6914	임야
전주지원	2015타경 5779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9078	사무실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수원지원	2015타경 9386	근린시설
정흥지원	2015타경 605	공장	서울동부지원	2015타경 3901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30627	공장	남원지원	2015타경 179	아파트
전주지원	2015타경 3629	공장	의정부지원	2013타경 16018	임야
순천지원	2015타경 2628	공장	광주지원	2015타경 375	의료시설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목포지원	2013타경 727	근린시설
군산지원	2014타경 9739	공장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유한회사 수호 부동산중개법인

사업자등록번호 464-88-00084 / 법인등록번호 200114-0058676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삼화/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 질권대출협약,JB캐피탈 NPL사업협약,담보부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 기업입니다.

부동산 중개 및 부동산 경매, NPL 업무에 관심있거나 참여하실분 선정 모집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 대출 지원 담당**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